



“다르게 생각하라, 연결하라, 그전에 책을 읽어라”

(주)서린바이오사이언스 황을문 대표

중소기업의 고민 중 하나는 안정적인 인력 수급이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근무여건은 구조적인 인력난을 겪게 한다. (주)서린바이오사이언스(이하 서린)의 황을문(52) 대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은 지식경영시스템에 있다고 강조한다. “돈이나 환경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이 회사를 떠나는 더 큰 이유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회사로서는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 해도 5년이 지나면 그 효용가치는 제로가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게 재교육입니다. 독서를 통한 지식경영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직원들의 자기개발 욕구를 만족시키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회사의 비전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독서로 지식경영시스템 구축... 인트라넷 독후감 3,500여편 게시

1984년 개인사업체로 시작해 1994년 법인으로 전환한 서린은 법인전환과 동시에 조직문화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 의료기 영업사원 시절부터 책에서 많은 것을 배웠던 황 대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서를 기본으로 한 지식경영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다. 사내 인트라넷을 만들고 직원들로 하여금 독후감을 올리게 했다. 하지만 일처리하기도 빠듯한데 책까지 읽으라니 직원들로서는 반가울 리 없었다.

그렇다고 직원들에게 쓴 약을 떠먹이듯 억지로 책을 읽게 할 수는 없었다. 독후감을 올리는 직원에게 1만 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주고 한 달에 세 편 이상 올리는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또한 이를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필독서 목록을 만들었다. 직원들에게 직급에 따라 필독서를 읽고 독후감을 쓰게 했다. 특히 신입사원의 경우 반드시 3개월 안에 12권의 필독서를 읽고 변화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인트라넷에 모인 독후감은 3,500편이 넘는다.

황을문 대표는 자신이 읽은 책들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다.



학습하고 가르치고 질문하는 조직문화

황 대표에게 독서는 당장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독서를 업무의 한 부분으로 정착시키는 것은 지식경영시스템 3단계 중 1단계로 ‘학습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었다. 2단계는 ‘가르치는 조직문화’다. 지난 10월 30일 서린의 직원들은 《먼데이 모닝 8일간의 기적》을 함께 읽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나의 핵심역량은 무엇인가, 회사를 위해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전 직원이 발표를 하고 번역자를 초청해 강의도 들었다.

이처럼 ‘가르치는 조직문화’는 단지 읽고 개인의 독후감을 쓰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해 발표하게 하는 것이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발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다른 책을 찾아보고 자신의 견해와 다른 점을 분석하는 등 나름대로 연구를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선의의 경쟁심이 유발되고, 동시에 하나의 텍스트를 놓고 다양한 견해를 접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이해와 사물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학습하게 된다.

“우리나라 사람은 정보와 노하우를 개인의 재산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특징은 창조나 발명보다 어떻게 연결시키느냐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경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다양성과 창조정신은 직접 경험 다음으로 책을 통해 얻을 때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질문하는 조직문화’다. 책을 읽게 되면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궁금한 점도 동시에 생겨난다. 황 대표는 ‘질문의 규모가 삶의 규모고, 질문의 질이 삶의 질이다’라고 말한다. 질문하지 않으면 새로운 답을 얻을 수 없고 높은 수준의 질문을 하면 높은 수준의 답이 돌아오기 마련이다.

“농촌사회에서는 힘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힘이 세면 새경도 많이 받았습시다. 산업화 시대에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정해진 시간에 열심히만 하면 됐죠. 하지만 21세기에는 아이디어, 곧 창의력이 경쟁력입니다. 저희 회사 사훈이 ‘다르게 생각하라, 연결하라’입니다. ‘생각의 차이’가 경쟁력인 사회입니다. 생각의 차이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바로 독서입니다.”

황대표 한 달 평균 12권 읽어... '책에서 지식아닌 정보 얻어야'

이처럼 독서를 통한 지식경영시스템은 지금의 서린이 있게 한 원동력이다. 1984년 10여 명의 인원으로 생명공학 벤처기업으로 시작한 서린은 현재 분자생물학과 면역학, 임상진단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재료들을 개발, 공급하는 임직원 52명의 중소기업으로 성장했다. 또한 부설연구소인 '서린생명과학연구소'를 설립해 단백질 분해효소와 예측, DNA 진단 시약 등 자체 개발사업까지 병행해 다범위 유전자형 검출 Kit 'UniPrimer', 세계 최초 P.I 개념의 생명과학연구기자재인 'MyLab'을 시장에 내놓기도 했다. '한국벤처기업대상', '이달의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상' '기술개발 시범기업' 선정 등 그야말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지식경영시스템은 다른 아닌 책에서 배운 것이었고, 황 대표 개인의 인생경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황 대표는 한 달에 평균 12권의 책을 읽는다. 외국출장을 갈 때마다 5~6권의 책을 가지고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뿐만 아니라 호텔에서도 책을 읽다가 잠이 든다. 국내에 있을 때도 술을 즐기지 않는 탓에 저녁 약속이 많지 않다. 대신 집에서 책을 읽는다. 책을 읽다보면 가슴 속에서 '화~' 하고 와 닿는 게 있다. 당시 그가 하고 있던 고민에 대한 답을 책에서 찾을 때다. 한 달에 서너 번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황 대표는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서점에 간다. 아이들에게는 독서습관을 기르게 하고 황 대표는 세상의 흐름을 읽는다.

“경영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흐름을 읽는 것입니다. 서점에 가면 바로 이러한 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신간이 많이 나오고 있는지, 같은 책을 놓고 서점마다 어떻게 디스플레이를 하는지를 눈여겨보면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황 대표는 책을 통해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지식을 얻기 위해 책을 읽다 보면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이다. 대신 황 대표는 책에서 정보를 찾으라고 충고한다. 정보는 어려운 곳에 있지 않다. 책의 제목이나 다양한 편집도 기업인에게 하나의 정보다. 낯선 문장, 신선한 디자인을 보며 황 대표는 경영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한다. **☞**

신입사원 필독서 《회사에 들어가서 바로 읽어야 할 책》(노다카모토이, 국일미디어)
《리더십 파이프라인》(램차란 외, 미래의창)
《순서가 보이는 정리기술》(나사무라 아키라, 영진닷컴)
《마인드파워》(존키호, 김영사)
《공병호의 자기경영노트》(공병호, 북이심일)
《최악의 고객이 최고의 고객이다》(고시고든, 예지)
《카네기 인간 관계론》(데일카네기, 카네기연구소)
《80/20 법칙》(리처드 코치, 21세기북스)
《강호》(셀트 보울츠, 21세기북스)
《부자들은 10원도 아낀다》(류우홍, 더난)
《선물》(스펜서 존슨, 랜덤하우스중앙)
《먼데이 모닝 8일간의 기적》(데이비드 코트렐, 한민)

부사장-임원 필독서 《CEO 코치의 비밀》(데브라 A 벤트, 좋은책만들기)
《인재 정탈전》(브루스 톨간, 모리버인버젝)
《위대한 기업으로 가는 전략지도》(코스틴티노스 C. 마키데스, 한민)
《최강조직을 만드는 강점 혁명》(키트 코프만, 청림출판)
《나를 변화시키는 좋은 습관》(한창욱, 새문북스)
《팔지 않고 팔리게 하라》(오가사와라 쇼지, 삼양미디어)
《돌파경영 돌파전략》(빌 데이빗슨, 휴먼앤북스)
《격려의 힘》(제임스 M. 쿠제스 외, 예코비츠)
《1등 기업에는 있고 2등 기업에는 없는 것》(조나단 로우 외, 청림출판)
《기업 혁신의 법칙》(도널드 N. 설, 웅진닷컴)
《그들은 어떻게 최고경영자가 되었을까?》(D.A 벤턴, 세종서적)
《경영 리더십》(데일 E 랜드, 유투문화사)
《CEO처럼 행동하라》(데브라 벤트, 더난출판)
《CEO가 당신이 알고 있길 원하는 것들》(프랭크 볼트, 큰나무)
《경영학을 씌어야 인생이 달콤하다》(김광희, 미래외경영)
《첨단산업 엘리트들의 34가지 경영지혜》(제프리 제임스, 세종서적)
《위대한 경영자의 성공마인드》(프랭크 티볼트, 큰나무)
《한자지로 승부하라》(브라이언트레이시, 21세기북스)
《넥스트 이코노미》(엘리트 에텐버그, 청림출판)
《미래의 경영》(로언 길스, 21세기북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짐콜린스, 김영사)